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교단 평신도 주일 및 가을맞이 특별새벽기도회

오늘 주일 예배(9.8)는 평신도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간 새벽예배는 가을맞이 특별새벽기도회로 지킵니다(9/9~14).

3. 경기서지방회 수원감찰 부부 모임

일시 : 2024년 9월 9일(월) 저녁 6:30
장소 : 온누리장작구이 백운호수점

4. 추석명절 감사주일 / 추석명절 가족예배 순서지

다음 주일(9.15) 오전 11시 예배는 <추석명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귀성길 되길 기원합니다. <추석명절 가족예배 순서지>를 현금 비치대에 준비해 놓았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청소년 예배 (본당 매주 토요일 오후 5~6시)

매주 토요일 오후 5~6시 청소년 예배를 드립니다.(첫 모임 9월 21일)

6. 2024년 9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7.29 ~ 8.28)

9.05(목) 정태현 9.13(금) 한태민 9.20(금) 김라라 9.21(토) 오지현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9/08	평신도주일
09/09	경기서지방 수원감찰 부부 모임
09-14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09/15	추석 명절맞이 감사예배 (16~18)
09/22	순교자 기념주일
09/26	한국순교자기념관 / 소래교회
09/29	선교 헌신예배
10/01	가을맞이 일석예배 (성찬예식)
10/06	태산자 작정 주일(1) 한글과 교회와 선교
10/13	태산자 작정 주일(2)
10/20	태산자 작정 주일(3)
10/27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절 성전 장식 시작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영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시각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5: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환영합니다 / 한진영 최성훈 이유찬 (한태민 인도) 주일대표기도



09/08	김혜숙 권사
09/15	정애자 권사
09/22	박제연 집사
09/29	이광근 안집사
10/06	임명자 집사
10/13	임명숙 집사
01/20	김혜숙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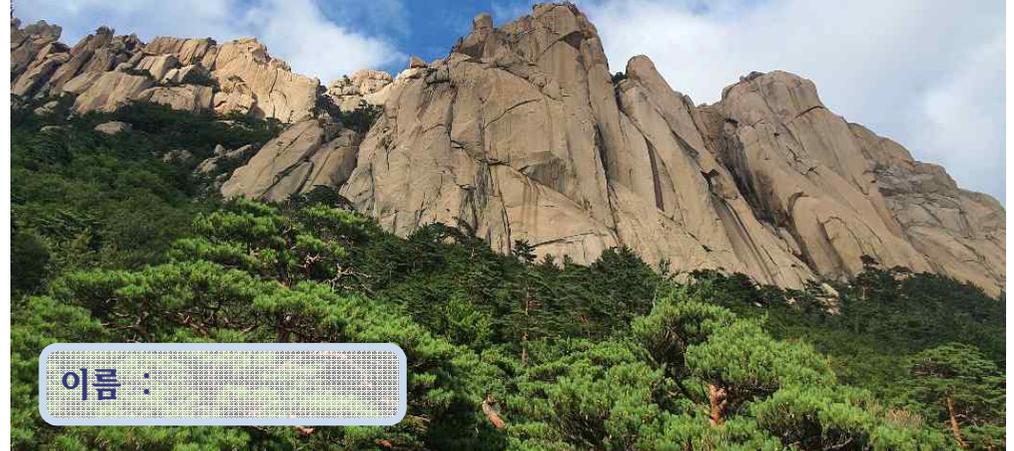
주사랑 7권 36호 | 2024년 9월 1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열여섯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평/신/도/주/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자

평신도헌신예배 (2024.09.08)

가을맞이 기도회 (2024.09.08~14)



이름 :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제33회 평신도주일) 인도:집례자

※ 목 도 이사야 45:18, 20-21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2장 다 같 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76. 요한복음 1장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254장 다 같 이
(내 주의 보혈은)

대표기도 김혜숙 권사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2:1~7 (신 338) 김혜숙 권사

특 송 말 은 이
(이광근 안수집사, 박제연 집사, 재우 재희 재아)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성도의 신분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524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아 어린이)

※ 축 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급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김혜숙 임명순 한태민 한승훈 임명순
주정현금 : 김혜숙 박제연 이광근 임명순 정애자 한승훈/문재효 임명자 오동영 임명숙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한은총 한성결
감사헌금 : 김혜숙(자녀) 정창재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월삭감사 : 한성결 한은총 한승훈 임명순 한희락

구역헌금 : 김혜숙 임명순
건축헌금 : 한승훈 임명순 / 관병남(박유미)
선교헌금 : 한승훈 임명순
후원헌금 : 오복상방애경 조은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국내선교(오주교호흡스쿨) 	해외선교(모로코) 	해외선교(타지키스탄)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	---	---	---	--

통일선교 비전기도회

오후 1:0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4:17~37 (구 566)
말씀제목 애절한 사랑과 순전한 믿음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야고보서 2:1~10 (신 372)
말씀제목 차별 없는 온전한 사랑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가족예배 가정별 찬양
성경봉독 열왕기상 12:1~12 (구 534)
대표기도 자녀들 중
말씀제목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마가복음 7:24-30 (신 65)
말씀제목 수로보나게 여자의 믿음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8일일 왕하 4:18-37 믿음의 존 소망과 용기
9일월 담하 4:9-22 도움을 주는 자
10일화 시 81:9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11일수 마 14:22-33 믿음이 적은 자여
12일목 막 1:14-15 천국을 이루는 화개
13일금 갈 6:17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14일토 눅 19:1-9 창조질서의 관계 회복
15일일 왕하 7:3-20 애상 밖의 인물들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당시 제사장이었던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은 이유는? (대상 13:7-8)
하나님의 궤를 새 ()에 () 아버지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 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 웃사의 죽음을 보고 법궤를 모시기를 꺼려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법궤를 가정 에 모심으로 큰 복을 얻은 사람은?(대상 13:13~14)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도와 성전 건축을 위한 백향목을 제공했던 두로 왕의 이름은?(대상 14:1)
두로 왕 ()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 다윗의 집권 이후 첫 전쟁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 왔다가 패전한 족속은? (대상 14:16~17)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 법궤를 모시던 오벰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이전 실패 원인을 무엇이라고 깨닫게 되었나요?(대상 15:13~15)
전에는 너희가 ()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궤를 () 올라가려 하여 몸을 ()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에 메니라
-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다윗을 보고 업신 여겼던 인물은?(대상 15:29)
여호와와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 시글락에 숨어 지내는 동안, 다윗과 함께 큰 고통을 함께 견뎠던 베나민 지파의 용사들은? (대상 12:1~7)

그 우두머리는 ()이요 다음은 ()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 사람 곧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아이며 또 예레미야와 아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새와 여러못과 브이라와 스마라와 하룻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잇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암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②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비옥한 땅을 떠나 척박한 땅으로 찾아왔던 큰 동역자들은? (대상 12:8~15)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잇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③ 사울 왕이 제공하는 영화로움 버리고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 다윗과 동역하는 자들은?(대상 12:16~18)

베나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 때에 ()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이 당신을 도우심이 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④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재정비를 위해 가장 먼저 취한 종교개혁은? (대상 13:5~6)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황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랴여아림에서부터 ()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랴여아림에 올라가서 ()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 사이에 계시므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평신도주일

제33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자”

평신도주일 : 2024. 9. 8(주일)

평신도주간 : 2024. 9. 8(주일) ~ 14(토)

평신도주간말씀



9월 8일(주일)
류승동 목사(총회장)
- 성도의 신분(딤후 2:3~7)



9월 9일(월)
정찬선 목사(부장)
- 도움을 주는 자(딤후 4:9~22)



9월 10일(화)
윤수현 목사(소위원)
-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시 8편 1~9)



9월 11일(수)
이용수 목사(소위원)
- 믿음이 적은 자여(마 14:22~33)



9월 12일(목)
김철호 목사(소위원)
-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회개(막 1:14~15)



9월 13일(금)
정덕균 목사(원주중앙교회)
-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냐?(갈 6:17)



9월 14일(토)
안성우 목사(부총회장)
- 창조질서와 관계의 회복(눅 19:1-9)



평신도주일 자료
다운로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평신도부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1107	제사장 엘리	삼상 1~4장
찬송가 찬 435장	다 같이	1069	사사 삼손	삿 13-16장
대표기도	말은이	1067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삼상 1-8장
성경봉독 왕상 12: 1~12	말은이	1043	사울의 통치 (~BC 1011)	삼상 10-31장
말씀인도 올바른 선택을 위해	말은이	1011	다윗의 통치 (~BC 971)	삼하2-왕상2
합심기도	다 같이	971	솔로몬의 통치(~BC 931)	왕상 1-11장
헌금기도 찬 350장	말은이	931	복조 1대 왕 여로보암(BC 913)	왕상 11장
주기도문	다 같이	931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상 12장

■ 들어가는 말

솔로몬은 이상승배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무거운 노역과 세금으로 백성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빼앗아, 한때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왕국을 르호보암에게, 나머지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여로보암에게 주심으로 고통스러운 <분열 왕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세겜은 므낫세 지파의 한 도시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부터도 매우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직접 내려갔다는 말은 다윗의 시대와는 달리 르호보암의 정치적 입지가 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다윗이 머물던 헤브론으로 찾아왔지만(삼상 5:1),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근거지인 예루살렘 성을 떠나, 모든 지파가 모여있는 세겜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솔로몬이 죽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정권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다윗 가문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많이 실망해서인지 다윗 왕권에 대해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가 솔로몬의 얼굴을 피해 애굽으로 달아났던 여로보암을 부릅니다(3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라는 기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과 맞설 수 있는 대항마로 여로보암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유다와 레위를 제외한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 르호보암을 찾아와(1~3절), 고된 노역과 세금 감면을 요구하지만(4-5절),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권면을 무시하고(6~7절), 자신의 입지만을 지지해주는 신형세력의 아둔한 제안을 받아들이므로(8~11),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권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할 때,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할까요?

첫째, 현실을 바르게 인지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세겜에서 모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승인하기 전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자신들의 노역과 명예를 무겁게 했으니, 이제는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한 왕궁과 성전을 유지보수해야 하는 노역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수한 세금만도 매 1년마다 금 666세겜이었으니 백성들이 과중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막대한 세금이 필요했던 이유는 호화로운 사생활 때문입니다. 금잔과 금 방패를 만들고, 레바논 궁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먹고 입히고 향락을 누렸고, 또 많은 병거와 말들을 키우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무역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안타깝게도 백성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처음에는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부유해지고 힘이 생긴 후 하나님을 떠나면서 탐욕스러운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솔로몬의 폭정을 그동안 참고 지내다가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폭정을 멈추고 애민정치를 정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고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이 바친 것을 갖고 부유하게만 지내왔기 때문에, 백성이 세금을 바치고 노역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통치자의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지 못하면, 올바른 국가경영과 애민통치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실력과 영성은 자신의 목적과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부합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깊이 살피고, 현실에 맞는 통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제안을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대신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원로들은 '오늘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면, 백성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오늘'과 '영원'으로 대응하는 원로들의 조언은 정치적 노련미와 지혜가 가득한 조언이었습니다. 즉 '한 번만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시만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 만해도, 결국 왕의 영원한 종이 되어 왕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제안은 왕에게도 좋고, 백성에게도 나쁘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하고 우둔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의 왕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과거의 누구보다 많이 경험과, 현재를 면밀히 해석할 수 있는 원로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백발은 경험적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앞서 사신 어르신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원로의 자문을 외면한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이들은 왕족들이나 귀족들로 부유함을 함께 누리고 사치스럽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젊다고는 하지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 였으므로(왕상 14:21) 육체적으로 젊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원로보다는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숙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지금 백성이 어떤 상황인지, 왜 이런 요구를 해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백성이 바친 것으로 부유하게만 지냈지, 백성이 세금을 바치고 노역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이 무거운 멍에를 거부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게도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젊은이들의 말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르호보암 자신의 생각에 힘을 보태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길은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섬기는 종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압과 채찍은 이방 폭군의 길입니다. 당장의 효율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 결론

솔로몬이 이상승배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된 노역과 세금으로 백성을 배신함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의 서문을 엽니다. 왕궁의 화려한 영광 뒤에는 백성들의 과중한 세금과 고된 노역이 있었음을 알아야 하지만,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외면하고 맙니다. 원로들의 지혜롭고 충직한 진언도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듣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소리에 정직하지 않은 자는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뿐 바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겸손하고 겸허하며 정직한 청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